

21세기 양돈산업을 선도하는 전문잡지로 거듭날 터

일

간 양돈이 7월1일로 창간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79년에 국내 최초로 양돈 전문잡지로서 태어난 후 월간 양돈은 지난 20년 동안 착실하게 성장해서 이제는 어엿한 성년이 되었습니다.

성년이 되는 동안 코흘리개 시절과 사춘기를 거치면서 독자 여러분께 여러 가지 걱정도 끼쳐드리고 꾸지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계신 여러분께서 항상 사랑스런 마음으로 지켜주시고, 조언해주시고, 훈육해주신 덕분에 이제는 아주 튼튼하고 믿음직스러운, 세계의 우수한 양돈잡지들과 어깨를 나란히 겨룰 수 있는 전도양양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월간 양돈이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원해주신 양돈인 여러분과 양돈관련 기관·단체·업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늘 광고라는 영양분을 공급해 주면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해주신 광고주 여러분, 바쁜 가운데서도 독자들에게 최신 정보와 신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밤늦도록 옥고를 집필해주신 집필진 여러분, 그리고 월간 양돈 발행에 관계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협회 임직원을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월간 양돈은 양돈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양돈업계에 최신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데 편집의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양돈업계의 여론을 집약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업계 상호간 대화의 광장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 성년이 된 월간 양돈은 보다 성숙하고 의젓한 자세로 양돈업계의 최선봉에 서서, 21세기의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주역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 각오입니다. 또한 양돈인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서 애로사항을 귀담아 들을 것이며, 간지러운 곳을 긁어주는 대변자, 해결사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1세기를 앞두고 우리 양돈업계에는 크게 세가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돼지콜레라 박멸입니다. 돼지콜레라를 박멸하지 못할 경우 우리 양돈업계에 미칠 파장과 피해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아는 바와 같이, 일본은 내년 가을에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중단할 계획이며, 2001년 4월에 청정화 선언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



최 상 백
(대한양돈협회 회장)

리 나라가 내년까지 돼지콜레라를 박멸하지 못하면 돼지고기 수출이 전면 중단돼 연간 3억5천만 달러의 시장을 잃는 것은 물론, 양돈업계가 연 3조7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 양돈농가가 100% 예방접종을 철저하게 시행해서 내년까지 기필코 돼지콜레라를 박멸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안전한 돼지고기의 생산입니다. 최근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다이옥신 오염 파동에서 보듯이, 식품의 안전성 문제는 이제 소비자들의 최대, 최고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급속히 파문을 일으키는 가장 민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며칠전에는 포천에서 사료의 독성물질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건으로 인해 젓소 수십마리가 집단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다이옥신 파동으로 인해 국산 돼지고기마저 소비가 감소하고 돼지가격이 폭락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도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신속하게 국산 돼지고기와 벨기에산 수입 돼지고기를 대상으로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를 해서 국산이 벨기에산의 1/50, 미국산의 1/30, 일본산의 1/2~1/11에 불과할 정도로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지만, 언제 또다시 이같은 문제가 제기될 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돼지고기 생산에서부터 사료 생산, 도축·가공, 유통 등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 단계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다이옥신 오염 파동이 사료 오염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진 만큼, 차제에 우리 나라에서도 '사료 안전관리법'을 제정해서 품질관리와 안전성 검사를 체계

화 해야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무임승차자 없는 양돈 자조금제도의 입법입니다. WTO 체제가 출범하고, 돼지고기 수입이 완전 개방된 현 시점에서 양돈산업을 정부에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개방화 시대에서는 산업의 주인인 양돈인들이 산업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민간 주도로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이런 면에서 무임승차자 없는 자조금제도의 입법은 한시바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이를 위해 6월 17일부터 7월 말까지 전국에서 전 양돈농가를 상대로 양돈 자조금제도 입법 동의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7월중에 공청회를 열어 최종 의견을 수렴한 후 법안을 만들어서 서명부와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입법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돈 자조금제도 입법에 양돈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밖에도 Y2K 문제와 가축분뇨의 자원화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같은 일은 어느 한 개인이 할 수 없으므로, 그동안의 갈등을 접고 전 양돈인과 양돈업계가 우리 협회를 중심으로 뭉쳐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6개월 후면 새로운 밀리니엄이 시작됩니다. 월간 양돈은 창간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천 년을 준비하는 한편, 새로운 밀리니엄 시대에서도 양돈업계를 선도하는 전문잡지로 거듭 태어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월간 양돈의 오늘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양돈**